



이용규

불붙은 'KIA砲' 1위 정조준

프로야구 전망대

‘핵타선’ 구축... 넥센·LG 제물 선두 노려
 타격왕 이용규 ‘꿈의 4할’ 향한 미친 질주

반환점을 둔 프로야구가 치열한 1위 싸움으로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1위 삼성과 3위 SK는 2게임차, 2위 KIA는 지난주 롯데와 한화를 상대로 4승2패를 거두면서 1게임차로 1위 삼성을 쫓고 있다. 이번 주에는 1위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한 ‘상위권 빅뱅’이 불만할 것으로 전망된다.

1위 고지를 눈앞에 둔 KIA는 주중 근산에서 최하위 넥센을 상대하고 주말 잠실로 가서 LG와 대결을 벌인다.

KIA가 올 시즌 6승3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넥센을 상대하는 동안 삼성과 SK는 문학에서 물리칠 수 없는 한관 승부를 펼친다. 근소한 차이로 선두권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주중 3연전 결과에 따라서 1~3위의 자리가 뒤바뀔 수도 있다.

KIA의 ‘한방’이 중반을 넘어선 올시즌 프로야구 정규리그 1위 향방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크다. KIA는 지난 30일 롯데와의

원정 경기에서 0-4, 7회 강우콜드 패를 당한 했지만 최근 6경기에서 뽑아낸 점수가 38점에 이른다. 지난주 6.3의 평균 득점을 기록한 KIA는 7개의 홈런으로 15점을 만들었다.

클린업 트리오 이병호·김상현·나지완의 한방은 물론 안치홍과 차일목도 손맛을 보면서 공포의 타선을 구축했다.

두 개의 홈런을 터트린 포수 차일목은 공수에서 맹활약하며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허리통증으로 데뷔 후 처음으로 2군에 다녀왔던 안치홍의 움직임도 좋다.

안치홍은 복귀 후 7경기에서 22타수 9안타(1홈런) 0.409의 타율로 3타점을 기록하면서 타선의 짜임새를 더했다.

톱타자 이용규의 ‘미친 질주’도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이용규는 지난주 6경기에서 26타수 14안타로 0.538의 타율을 기록했다. 타점도 2점

■ 2011 프로야구 중간순위 (7월 4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삼성	71	41	28	2	0.594	-	1패
2 KIA	73	42	31	0	0.575	1.0	1승
3 SK	67	38	29	0	0.567	2.0	5패
4 LG	69	36	33	0	0.522	5.0	3패
5 두산	68	31	35	2	0.470	8.5	5승
6 롯데	70	30	37	3	0.448	10.0	1승
7 한화	74	32	41	1	0.438	11.0	1패
8 넥센	68	26	42	0	0.382	14.5	2승

을 보였고, 6번 홈을 뚫으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불붙은 타선을 앞세운 KIA는 3100홈런과 3600도루라는 팀 기록 달성 초읽기에 들어갔다. 프로야구 두 번째 3100홈런에는 4개가 부족하고, 통산 첫 3600 도루에는 3개를 남겨두고 있다.

‘어게인 2009’를 외치고 있는 중심타자 김상현은 홈런포 하나를 추가하면 100홈런의 주인공이 된다.

KIA 조범현 감독은 1위 자리와 통산 500승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 3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5-1로 승리를 거두며 496승째를 신고한 조범현 감독은 4승만 추가하면서 프로야구 역사상 9번째로 500승을 지휘한 감독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브라질 월드컵 예선 이동국 출전 가능성



프로축구 K리그에서 역대 12번째로 '40골 - 40도움'을 기록한 이동국(전북)이 9월 시작되는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조광래 축구대표팀 감독은 4일 “이동국이 지난해보다 문전에서 적극성과 움직임이 좋아지고 득점력도 높아졌다”며 “이달 말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할 대표팀 예비명단(35명)에 넣겠다”고 말했다.

이동국은 3일 서울과의 K리그 정규리그 16라운드 경기에서 이승현의 골을 도왔다. 이로써 통산 109골 40도움을 기록하면서 K리그 '40골-40(도움) 클럽'에 가입했다. 프로 14년 차인 이동국은 올해 정규리그 16경기에서 10골 8도움으로 득점 2위, 도움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는 2009시즌 22골로 생애 첫 득점왕에 오른 이후 지난해 13골을 포함해 이번 시즌까지 세 시즌 연속 두자릿수 골을 달성해 '제3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연아 VS 비트 누가 웃을까

2018 동계올림픽 평창·원현 유치전 '피겨스타 대결'



김연아 카타리나 비트

25세 차이가 나는 두 스타가 2018 동계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소속 국가의 도시를 대표해 정면 대결하는 묘한 상황이 아프리카에서 펼쳐지고 있다.

평창올림픽유치위의 홍보대사로 뛰는 김연아는 오는 6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하는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나선다. 김연아는 동계 체육의 확산을 통해 올림픽 운동을 활성화하려면 일본에서 서만 두 차례 열린 동계올림픽이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서도 개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겨울 스포츠가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의 불모지로 뻗어 가며 끊임없이 '새로운 지평(New Horizons)'을 열어가야 한다는 평창의 믿음을 설파하고 있는 것이다.

비트는 원현 동계올림픽 유치사회의 의장을 맡아 각종 국제행사에서 IOC 위원들을 직접 접촉하는 방식으로 원현의 도전을 홍보해 왔다.

세계인 누구나 호감을 갖는 매력적인 피겨여왕 김연아와 강력한 스포츠 외교관으로 거듭난 옛 피겨여왕 비트의 대결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연합뉴스

충성 없이 펼쳐지는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전에서 동계스포츠의 꽃으로 불리는 피겨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친 신·구 스타 간의 대결이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강원도 평창과 독일 원현 유치단에 핵심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피겨여왕' 김연아(21·고려대)와 카타리나 비트(46)가 그 주인공이다.

김연아는 2009년 그랑프리 파이널과 4대륙 선수권대회, 세계선수권대회,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그랜드슬램을 이뤘다. 말 그대로 당대 세계 최고의 피겨 스타로 우뚝 선 것이다.

반면 비트는 1984년 사라예보 올림픽과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을 석권하고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네 차례나 정상에 오른 피겨의 전설이다.



힘찬 페달

4일 경북 영주에서 열린 제13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배 전국사이클대회 남자일반부 스크래치 15km 결승에 출전한 선수들이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벙커 빠진 '탱크' 통한의 더블보기

최경주 AT&T 준우승

'탱크' 최경주(41·SK텔레콤)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내셔널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2007년 이 대회 우승자 최경주는 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뉴타운 스퀘어의 에러니크 골프장(파70·723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6개와 보기 1개, 더블보기 1개로 3타를 줄여 최종합계 11언더파 269타를 기록했다. 5월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이후 시즌 2승, 개인 통산 9승째를 노렸던 최경주는 13언더파 267타로 우승을 차지한 니 와트니(미국)에 2타 뒤진 준우승에 만족하게 됐다.

/연합뉴스

3라운드까지 공동 1위에 1타 뒤진 3위였던 최경주는 14번 홀(파3)에서 버디를 낚아 와트니와 공동 선두에 올랐다. 그러나 15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이 그린 왼쪽 벙커에 빠졌고 벙커샷은 그린을 넘겼다. 이어 약 3.8m 거리에서 시도한 보기 퍼트마저 20cm 정도로 빗나가는 바람에 더블보기에 그쳤다.

순식간에 와트니와 2타 차로 벌어진 최경주는 16번 홀(파5)에서 버디를 낚아 다시 와트니를 압박하는 듯했다. 5월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이후 시즌 2승, 개인 통산 9승째를 노렸던 최경주는 13언더파 267타로 우승을 차지한 니 와트니(미국)에 2타 뒤진 준우승에 만족하게 됐다.

/연합뉴스

한국 태권도 런던올림픽 티켓 4장 확보

한국 태권도가 최근 국제대회에서 잇따른 성적 부진으로 체면을 구겼지만 2012년 런던 올림픽 출전권 네 장을 무난히 챙겼다.

중량급의 간판스타인 차동민(25·한국가스공사)은 3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의 사르차치 스포츠올림픽센터에서 열린 런던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남자 80kg초급 경기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해 한국

에 올림픽 출전권을 안겼다.

한국은 남자 58kg급의 이대훈(용인대·3위), 여자 67kg급의 김미경(인천시청·1위)과 67kg초급의 안세복(삼성애스원·2위)에 이어 마지막 주자인 차동민도 3위 안에 가깝게 들면서 네 체급 모두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네 체급의 '런던행 티켓'을 딴 나라는 한국뿐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Golfer를 위한 새로운 제안

리즈골프(Liz Golf) 프라이머 호남 VIP 출시

“본인+무기명3인 그린피 전액무료”
100% 보증금 + 보험증권 5년만기 발행

리즈골프(Liz Golf) Membership

리즈골프(Liz Golf) Membership 이란?

- ▶ 국내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부킹 서비스
- ▶ 국내 전국 골프장 주중, 주말 현지 골프장에서 바로 회원대우
 - ① 수도권 : 주중 ⇨ 회원 대우, 주말 ⇨ 주중회원 대우.
 - ② 영남권/충청권/강원권 : 주중 ⇨ 회원 대우, 주말 ⇨ 회원 대우.
 - ③ 호남권/제주도 : 주중, 주말 ⇨ 무료 라운딩.
- ▶ 보증금 전액 보험증권 5년만기 발행

리즈골프 호남지사 개소기념 특별혜택

- ▶ 주중 5회 무료 라운딩 추가혜택(선착순 50명)

기타 회원혜택

- ▶ 제주 골프장 주중, 주말 부킹 서비스 (제주골프투어시 제주골프클럽 15박 회원대우)
- ▶ 해외 골프투어 5개국 23개 명문 골프장 전 일정 자상경비 회원대우 (중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 ▶ 매년 회원의 날 친선 골프대회 개최

계좌번호
100-023-066943(신한), 349437-04-000608(국민)
예금주 : (주)리즈골프

주식회사 리즈골프

회원 가입안내

상품명	가입금액	보증금	가입기간	회원자격	골프서비스	숙박서비스	모집인원
프라이머 호남VIP	15,200만원	전액 보증금	5년	기 명-1인 무기명-3인	주중8회, 주말4회/월 (월12회 / 년108회)	27평형대 년 60박	9명
플래티늄	6,400만원	전액 보증금	5년	기 명-1인 무기명-1인	주중3회, 주말1회/월 (월4회 / 년39회)	27평형대 년 15박	32명
프라이머	3,800만원	전액 보증금	5년	기 명-1인	주중2회, 주말1회/월 (월3회 / 년27회)	25평형대 년 15박	

프라이머 호남 VIP란?

- ▶ 광주/전남 법인회원을 위해 리즈골프 호남지사만의 단독상품으로 법인 Business용 Golf Membership 회원권입니다.

상담문의 TEL. 062)371-1800(대)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310-6 골프프라자 B.D 5층